

# 부모 놀이참여와 유아의 친화적 놀이 주도성이 유아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 유아 놀이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The Influence of Parent's Play Participation and Children's Friendly Play Initiative on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Children's Play Flow

변수영<sup>1</sup> 임지영<sup>2</sup>

Sooyoung Byun<sup>1</sup> Jiyoung Lim<sup>2</sup>

##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parent's play participation and children's friendly play initiative affect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through children's play flow.

\* 본 논문은 2022년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일부의 수정·보완한 것임.

**Method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376 children between the age of 3 and 5 their parents in Daegu city and Gyeongsang provinc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questionnaires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sample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with SPSS 25.0 and AMOS 23.0 programs.

\*\* 본 논문은 2022년 한국보육지원학회 춘계연합학술대회 포스터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Results:**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arent's play participation, children's friendly play initiative, children's play flow, and executive function according to the children's age and family income. Second, parent's play participation and children's friendly play initiative indirectly affected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through children's play flow.

### 1 제1저자

경북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생,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본부 연구원

**Conclusion/Implications:** This study highlights how children's play affects executive function. Also,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designing various programs that can promote parent's play participation, children's friendly play initiative, and play flow, which affects the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 2 교신저자

경북대학교 아동학부  
아동가족학 전공 교수,  
장수생활과학연구소 연구위원  
(e-mail : limj@knu.ac.kr)

**key words** parent's play participation, friendly play initiative, play flow, executive function

## I. 서론

급속히 변화하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데에 자기가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 행동 및 사고를 조절하는 능력은 사회에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이다. 실행기능(executive function)은 개인 스스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사고를 조직하는 능력으로 전두엽 피질과 관련된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사고과정이다(공영숙, 2012). 실행기능은 공간과 시간의 조직, 선택적 행

동 및 주의 억제, 목표 달성, 계획, 인지적 유연성 등을 포함하며(Coolidge et al., 2000), 목적적이고 목표지향적인 행동과 관련된 과정을 통합하는 포괄적인 구성개념이다(공영숙, 임지영, 2013; 이윤아, 이완정, 2015; Gioia et al., 2001).

이러한 실행기능은 전두엽의 발달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유아기에 급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Hughes, 1998; Welsh et al., 1991; Zelazo et al., 1997), 3~6세 경에는 실행기능의 특성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보고되었다(Carlson & Wang, 2007; Diamond & Taylor, 199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일적 차원으로 측정된 유아의 실행기능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가구소득에 따라 지적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달라져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이봉주 등, 2010)를 바탕으로 실행기능이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유아기 실행기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에 자신보다 인지적 수준이 높은 성인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Sokol et al., 2010). 그중에서도 부모는 유아에게 가장 밀접한 상호작용 대상이며, 유아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조절하고, 상호작용 시 자연스러운 활동으로 부모와의 놀이가 이루어진다(최은정, 김은향, 2019). 특히 유아기는 놀이를 통해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놀이 과정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생각과 감정 등을 표현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배우는 중요한 시기이다(최태산, 조미정,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실행기능 발달에 기여하는 개인외적 변인인 부모 놀이참여를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유아기에 부모는 자녀와의 놀이에서 놀이 계획, 놀이 수준 향상, 놀이촉진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한다(Hughes, 1995; Russell & Saebel, 1997). 또한, 부모와의 놀이 경험은 유아에게 놀이를 통해 부모로부터 인지적으로 자극을 받고, 문제해결 방식을 습득할 기회를 부여받게 되므로 부모 놀이참여는 유아의 실행기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차미숙, 김광웅, 2018).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놀이에 자주 참여할수록 유아의 마음이론과 학습관련 기술 등과 같은 인지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결과(노윤미, 2006)와 부모가 놀이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나, 유아가 흥미를 보이는 것에 참여할 때, 유아의 실행기능이 높았다는 연구결과(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5; Towe-Goodman et al., 2014)가 보고되었다.

여러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유아기동안 부모와의 놀이 과정에서 유아가 스스로의 정서표현을 조절하는 방식을 배우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기회를 얻게 됨으로써 실행기능을 더욱 발달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Cemore & Herwig, 2005; Kelly et al., 2011; Toub, 2012). 따라서 유아기 실행기능 발달에 있어 부모의 놀이참여는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변인이다. 특히 유아의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 놀이참여 수준이 높다고 보고된 선행연구결과(김명순 등, 2013; Barnett & Baruch, 1988)를 바탕으로 유아의 연령에 따른 부모 놀이참여에 차이가 있는지 본 연구에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유아의 실행기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또 다른 변인으로 놀이 관련 유아의 개인 내적 특성을 들 수 있는데, 그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진화적 놀이 주도성의 영향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놀이 주도성이란 놀이상황에서 유아가 놀이를 이끌어가고 진행하기 위해 적절한 의사소

통 전략과 역할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이체호, 최인수, 2008; Goncu, 1993), 놀이 중 또래를 통제하거나 주도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는 유아의 역할로 정의된다(Segal & Adcock, 1981). 놀이 주도성이 높은 유아는 놀이상황에서 또래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하지만(Kostelnik et al., 2015) 때로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 유아의 행동이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높은 주도성은 또래를 공격하고 놀이를 방해하는 행동으로 이어져 오히려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최미숙, 황운세, 2007). 즉, 유아의 놀이상황에서 주도적인 행동과 역할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태도나 역할로 구분되어 나타날 수 있다(이유미, 신나리, 2019).

이는 유아기의 놀이주도성이 놀이의 진행을 원활히 하도록 놀이구조를 제공하는 친화적 놀이 주도성과 놀이상황에서 또래를 복종하고 억압하게 만들어 다스리는 비친화적 놀이주도성으로 구분한다는 관점과 맥을 같이한다(변혜원, 성지현, 2017).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친화적 놀이주도성은 유아가 놀이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또래와 협력하고, 놀이 진행을 위한 구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놀이를 상상놀이로 발전시키고, 언어적 요구를 통해 유연한 놀이 진행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행동을 말한다(이유미, 신나리, 2019).

반면 비친화적 놀이주도성은 놀이에서 또래를 자신의 의사대로 복종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언어적 또는 육체적 공격을 사용하여 또래를 지배하여 놀이를 명령하고, 강요하며, 위협하는 정도를 말한다(Trawick-Smith, 1988). 이처럼 친화적 놀이주도성과 비친화적 놀이주도성은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기능하고(변혜원, 성지현, 2017),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서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최미숙, 황운세, 2007; Kostelnik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친화적 놀이주도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유아의 연령에 따른 친화적 놀이주도성을 살펴본 연구는 극히 드물어 본 연구에서 유아의 연령에 따른 친화적 놀이주도성에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과 유아의 실행기능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놀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유아는 스스로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또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다(강유진, 2013). 이처럼 유아가 놀이에서 보이는 다양한 목표지향적인 행동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정서를 조직하는 실행기능(공영숙, 임지영, 2013; Gioia et al., 2001)과 유사한 맥락에서 발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놀이상황에서 또래유능성의 하위요인인 주도성은 실행기능과 밀접한 관련과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조다연, 성지현, 20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이 유아의 실행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과 더불어 유아의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할 때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변인으로 유아의 놀이몰입이 있다. 유아의 놀이몰입은 스스로 좋아하는 놀이를 선택하여 집중하고 즐길 때 느끼는 긍정적인 정서와 의식상태를 의미한다(나은숙, 2013). 유아는 놀이몰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기도 하고(김정운, 2006), 높은 수준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기를 수 있게 된다(최남정, 오정희, 2010; Dewey, 1934). 유아의 연령에 따른 놀이몰입의 차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각기 다른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놀이몰입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선행연구(홍윤정, 2017)와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이선경, 심성경, 2016)가 있어 본 연구에서 유아의 연령에 따른 놀이몰입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놀이몰입과 실행기능 간의 관련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는 신경심리학적 관점에서 개인이 몰입을 경험하는 것이 실행기능과 관련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Golub et al., 2016), 유아가 놀이에 몰입하고 놀이를 통해 흥미를 느낄 때 실행기능의 한 측면인 유아의 인지적 유연성이 증가한다고 밝혔다(안서희, 정윤경,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놀이몰입이 유아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설명한 유아의 놀이몰입은 부모 놀이참여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선행연구에서는 아버지의 놀이참여가 유아의 놀이몰입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박형신, 김정주, 2017). 하지만 부모 놀이참여가 유아의 발달에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일부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부모가 유아의 놀이에 참여하는 개입의 정도에 따라 영향의 방향성이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다(이숙재, 1984; 홍현명, 권혜진, 2021). 부모가 유아 놀이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한 개입 수준이 높으면, 유아는 기존의 놀이 활동이나 부모가 허용한 범주 안에서 놀이를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차유미, 이진희, 2016) 스스로 좋아하는 놀이를 선택하고 집중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부모 놀이참여가 유아의 놀이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유아의 놀이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과의 관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래와의 놀이상황에서 자신의 주도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놀이몰입이 높아지고(박진희, 2019),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놀이에 더 몰입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나은숙, 2013)를 본다면, 놀이상황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인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은 유아의 놀이몰입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부모 놀이참여 및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은 유아의 놀이몰입에 영향을 주고, 유아의 놀이몰입은 유아의 실행기능에 다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유아의 놀이몰입은 부모 놀이참여 및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이 유아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으로 사료된다. 먼저, 부모 놀이참여와 유아의 실행기능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놀이몰입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적절한 놀이참여는 유아의 놀이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박형신, 김정주, 2017), 유아의 놀이몰입은 유아의 실행기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김진경, 2020) 부모 놀이참여에 의해 영향을 받은 유아의 놀이몰입은 순차적으로 고차원적 사고능력인 실행기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과 유아의 실행기능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놀이몰입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또래와 함께 하는 놀이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놀이를 주도하고 진행하는 능력이 높으면 놀이몰입이 증가하고(박진희, 2019), 높아진 놀이몰입은 실행기능 향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지만, 주도성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학습에 더 몰입하게 한다(장수진, 2008)고 보고하고 있다. 즉,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몰입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므로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이 높을수록 놀이상황에서 몰입하는 경험이 많아질 것이다. 또한, 놀이에 대한 몰입의 정도가 높으면 유아의 실행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을 요약하면, 부모 놀이참여 및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은 놀이몰입에 영향을 미치며, 유아의 놀이몰입은 부모 놀이참여 및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이 유아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아에게 실행기능은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며, 미래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발달인지적 요소이므로 이러한 기능에 영향을 주는 부모 놀이참여와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 및 유아의 놀이몰입의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배경 변인에 따라 각 변인간의 차이를 보고한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연구설계를 위해 인구사회학적 배경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만 3~5세 유아와 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 놀이참여,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 유아의 놀이몰입 및 유아의 실행기능 간의 구조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의 실행기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모 놀이참여의 중요성과 놀이참여 방법, 유아의 실행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놀이몰입 지원 및 친화적 놀이주도성 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부모 놀이참여,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 및 유아의 실행기능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놀이몰입은 매개역할을 하는가?

1-1. 인구사회학적 배경 변인에 따라 부모 놀이참여,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 유아의 놀이몰입 및 실행기능의 차이는 어떠한가?

1-2. 부모 놀이참여,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 및 유아의 놀이몰입이 유아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어떠한가?

1-3. 부모 놀이참여,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이 유아의 놀이몰입을 매개하여 유아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보육기관의 만 3~5세 유아와 유아의 부모 376쌍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자료는 유아가 재원 중인 기관의 담임교사 41명과 유아의 부모들로부터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유아의 성별은 남아가 197명(52.4%), 여아가 179명(47.6%)이었으며, 유아 연령은 만 3세 73명(19.4%), 만 4세 159명(42.3%), 만 5세 144명(38.3%)이었다. 부모의 연령을 살펴보았을 때,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40.1세( $SD = 4.34$ ),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7.6세( $SD = 3.87$ )이었다. 맞벌이 유무를 살펴보았을 때, 외벌이 가구는 192가구(51.1%)로 맞벌이 가구인 184가구(48.9%)보다 많았다. 가구 월평균 소득은 401-

600만원이 173가구(46.0%)로 가장 많았으며, 201-400만원 103가구(27.4%), 601-800만원 61가구(16.2%), 801만원 이상 34가구(9.0%), 200만원 이하 5가구(1.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N = 376)

변인		구분	빈도(백분율)	변인		구분	빈도(백분율)
유아	성별	남	197(52.4)	유아	연령	만 3세	73(19.4)
		여	179(47.6)			만 4세	159(42.3)
						만 5세	144(38.3)
부	연령	20대	2( .5)	맞벌이			184(48.9)
		30대	174(46.3)	외벌이			192(51.1)
		40대	187(49.7)	가구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5( 1.3)	
		50대	13( 3.5)		201-400만원	103(27.4)	
모	연령	20대	9( 2.4)	401-600만원	173(46.0)		
		30대	259(68.9)	601-800만원	61(16.2)		
		40대	108(28.7)	801만원 이상	34( 9.0)		

## 2. 연구도구

### 1) 부모 놀이참여

부모의 놀이참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Stevenson 등(1988)의 놀이 유형 척도와 이숙재(1984)의 놀이참여 정도 단계를 참고로 하여 원희영(1997)이 제작한 검사지를 최유석(2018)이 수정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놀이 유형은 구성, 신체, 교수, 게임, 역할, 기능 놀이의 6개 하위요인으로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는 ‘자녀가 블록으로 만들기를 할 때’, ‘자녀가 숨바꼭질과 같은 숨기 놀이를 할 때’, ‘자녀가 공놀이를 할 때’ 등이 있다. 부모가 평정하는 이 질문지는 4점 리커트 척도로 놀이참여 정도는 ‘무관심(1점), 바라보기(2점), 소극적 참여(3점), 적극적 참여(4점)’로 평정되며, 하위요인의 총점수가 높을수록 놀이참여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놀이참여 평균점수와 아버지 놀이참여 평균점수를 구한 뒤, 두 점수의 평균을 산출하여 부모 놀이참여 점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아버지 놀이참여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93, 어머니 놀이참여 Cronbach's  $\alpha$  계수는 .91이었다.

### 2)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변혜원(2017)이 개발한 교사용 유아 또래주도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래주도성은 친화적 또래주도성과 비친화적 또래주도성, 2개 하위요인으로 총 3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친화적 또래주도성은 목적이나 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 힘을 합하여 돕고, 놀이 진행을 위한 구조를 제공하며, 언어적 전략을 통해 놀이를 제안하고 협상하는 행동을 보이는 정도를 말한다(신유림, 1995; Black, 1992; Goncu & Kessel, 1984; Schwartzman,

1978). 총 28문항이며, 예는 ‘OO이는 놀이할 때 놀이를 확장하는 편이다.’, ‘OO이는 놀이 상대에게 놀이방법을 제시하고 놀이를 이끄는 편이다.’, ‘OO이는 놀이할 때 기존의 놀이 규칙을 새롭게 만들어서 노는 편이다.’ 등이 있다.

비친화적 또래 주도성은 또래를 자기 의사대로 복종시키려 하며, 언어 및 육체적 공격을 사용하여 또래를 지배하려는 행동을 의미하고, 놀이를 명령하고 강요하는 정도를 말한다(Trawick- Smith, 1988).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예는 ‘OO이는 놀이할 때, 상호작용을 확대시키지 못하게 하는 놀이전략을 쓰는 편이다.’, ‘OO이는 놀이 상대에게 강제로 역할을 정해주는 편이다.’, ‘OO이는 놀이 상대의 놀이를 무시하는 편이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놀이 상황에서 유아가 보이는 긍정적인 주도적 행동을 살펴보기 위해 친화적 또래 주도성 28문항만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또래 주도성이라는 명칭은 놀이 주도성과 동일한 개념으로 또래를 통제하거나 주도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는 유아의 역할(Segal & Adcock, 1981)로 정의되어(변혜원, 2017; 황윤세, 2022; Segal & Adcock, 1981),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친화적 놀이 주도성이라고 명명하였다. 교사가 평정하는 이 질문지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로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되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친화적 놀이 주도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유아의 친화적 놀이 주도성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95이었다.

### 3) 유아의 놀이몰입

유아의 놀이몰입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나온숙(2013)이 개발한 교사용 유아 놀이몰입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문제해결과정, 자의식의 상실, 놀이에 대한 집중, 시간이 변형된 느낌의 4개 하위요인으로 총 4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는 ‘유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쉽게 찾는다.’, ‘유아는 놀이를 하는 동안 쉽게 집중할 수 있다.’, ‘유아는 주어진 과제에 열중할 때 시간 감각이 바뀌는 것 같다.’ 등이 있다. 교사가 평정하는 이 질문지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아니다(1점) ~ 매우 그렇다(5점)’로 평정되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놀이몰입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유아의 놀이몰입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97이었다.

### 4) 유아의 실행기능

유아의 실행기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Nilsen 등(2017)이 개발한 일상의 실행기능 척도(Rating of Everyday Executive Functioning; REEF)를 차미숙(2018)이 번안한 부모용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76문항의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행동 중 유아의 실행기능 발달을 의미하는 행동들을 특정 장소와 상황(가정, 공공장소, 마트 등)별로 제시하고 있다.

문항의 예로 ‘자녀가 게임이나 놀이를 할 때, 게임 방법에 대한 설명이 길더라도 그 내용을 잘 기억한다.’, ‘자녀가 여러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한다.’, ‘자녀는 마트나 쇼핑몰에서 사달라는 것을 사주지 않아도 오랫동안 실망하지 않는다.’ 등이 있다. 부모가 평정하는 이 질문지는 4점 리커트 척도로 ‘거의 그렇지 않다(1점) ~ 항상 그렇다(4점)’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실행기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유아의 실행기능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96이었다.

###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 놀이참여 및 유아의 실행기능을, 교사를 대상으로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 및 놀이몰입에 대한 질문지를 통해 수집되었다. 구체적으로 부모 놀이참여는 놀이참여정도에 대한 부모의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며, 유아의 실행기능 역시 가정 등 특정한 장소와 상황별 유아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하므로 부모가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반면에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과 놀이몰입은 놀이상황에서의 또래와의 상호작용 및 관찰이 필요하며, 교사가 놀이상황에서의 유아의 특징을 평정하는 원칙도 개발 의도를 반영하여 교사가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예비조사는 2021년 6월 21일부터 28일까지 질문지의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도, 질문지 작성상의 문제점 및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살펴보기 위해 대구광역시 소재의 유아교육·보육기관에 재원중인 만 3~5세 유아의 부모 3쌍과 교사 3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후 전공자의 검토를 반영하여 질문지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21년 7월 8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되었다. 유아교육·보육기관 내 원장이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해 동의한 부모님과 교사에게 부모용 설문지와 교사용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총 570부를 배부하여 402부가 회수되었으며, 어머니 혹은 아버지 놀이참여를 평가하지 않은 질문지(15부)를 포함하여 응답이 부실한 질문지를 제외한 376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5.0과 AMO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 놀이참여,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 유아의 놀이몰입 및 유아의 실행기능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배경 변인에 따라 부모 놀이참여,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 유아의 놀이몰입 및 유아의 실행기능 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의한 결과가 나온 변수를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부모 놀이참여 및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과 유아의 실행기능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놀이몰입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AMO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적합도지수( $\chi^2$ , GFI, AGFI, CFI, NFI, RMSEA)를 살펴보았다. 또한, 변인 간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든 분석에서 유의 수준은  $p < .05$ 로 설정하였다.



### III. 결과 및 해석

#### 1. 부모 놀이참여,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 및 유아의 실행기능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놀이몰입의 매개효과

1) 부모 놀이참여,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 유아의 놀이몰입 및 유아의 실행기능 간의 상관관계  
 부모 놀이참여와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이 유아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의 놀이몰입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본 분석에 앞서, 변인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자 기술통계 분석 및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부모 놀이참여는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 $r = -.18, p < .001$ ), 유아의 놀이몰입( $r = -.23, p < .001$ )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유아의 실행기능( $r = .11, p < .05$ )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부모의 놀이참여가 많아질수록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과 유아의 놀이몰입 수준이 낮고, 유아의 실행기능 수준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은 유아의 놀이몰입( $r = .69, p < .001$ ), 유아의 실행기능( $r = .12, p < .05$ )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유아의 놀이몰입은 유아의 실행기능( $r = .17, p < .01$ )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놀이몰입과 유아의 실행기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유아의 놀이몰입이 높을수록 유아의 실행기능 수준 또한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변인들의 정규성을 확인해보고자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을 때, 절대값 기준 왜도 2.0이하 첨도 7.0 이하로 나타나 모든 변인은 정규성 가정(West et al., 1995)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 $N = 376$ )

변인	부모 놀이참여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	유아의 놀이몰입	유아의 실행기능
부모 놀이참여	1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	-.18***	1		
유아의 놀이몰입	-.23***	.69***	1	
유아의 실행기능	.11*	.12*	.17**	1
평균	3.14	3.56	3.53	2.72
표준편차	.54	.68	.83	.69
왜도	-.69	-.74	-.49	-.02
첨도	.63	1.16	.22	-.55

\* $p < .05$ , \*\* $p < .01$ , \*\*\* $p < .001$ .

2) 인구사회학적 배경 변인에 따른 부모 놀이참여,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 및 유아의 실행기능의 차이  
 부모 놀이참여와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이 유아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의 놀

이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전 유아의 연령, 가정의 월 평균 소득 등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른 변인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연령에 따라 부모 놀이참여( $F = 4.52, p < .05$ ),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 $F = 6.43, p < .01$ ), 유아의 놀이몰입( $F = 15.95, p < .001$ ) 및 유아의 실행기능( $F = 6.48, p < .01$ )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에 유아의 연령에 따라 부모 놀이참여(김명순 등, 2013; Barnett & Baruch, 1988),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변혜원, 성지현, 2017), 유아의 놀이몰입(박진희, 2019) 및 유아의 실행기능(공영숙, 2012; 권두리, 2021; 정은진, 2019; Zelazo et al., 2003)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 연구들과 본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모든 변인에 유아의 연령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또한, 가정의 월 평균 소득에 따라 유아의 실행기능( $F = 2.42, p < .05$ )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구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이지연, 광금주, 2008)는 본 분석 결과와 일맥상통하다. 선행연구 결과와 본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유아의 실행기능에 가정의 월 평균 소득 역시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배경 변인 중 유아 성별, 부모의 연령 등 다른 변인들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유아의 연령과 가정의 월평균 소득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한 경로모형을 설정하여 본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 (N = 376)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인		인원수	평균	표준편차	F	
부모 놀이참여	유아 연령	만 3세	73	3.23	.57	4.52*
		만 4세	159	3.19	.49	
		만 5세	144	3.03	.56	
유아 친화적 놀이주도성	유아 연령	만 3세	73	3.31	.89	6.43**
		만 4세	159	3.62	.62	
		만 5세	144	3.63	.58	
유아 놀이몰입	유아 연령	만 3세	73	3.06	.95	15.95***
		만 4세	159	3.64	.73	
		만 5세	144	3.66	.79	
유아 실행기능	유아 연령	만 3세	73	2.46	.64	6.48**
		만 4세	159	2.76	.66	
		만 5세	144	2.80	.72	
가구 월평균 소득	유아 실행기능	200만원 이하	5	2.20	.84	2.42*
		201-400만원	103	2.65	.64	
		401-600만원	173	2.68	.73	
		601-800만원	61	2.84	.69	
	유아 실행기능	801만원 이상	34	2.94	.57	

\*  $p < .05$ , \*\*  $p < .01$ , \*\*\*  $p < .001$ .

3) 부모 놀이참여,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 및 유아의 실행기능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놀이몰입의 매개효과

부모 놀이참여 및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과 유아의 실행기능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놀이몰입의 매개효과 검증에 대해 경로모형을 분석한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표 3과 같다. 그 결과는  $\chi^2 = 10.27(df = 3, p < .05)$ , GFI = .99, AGFI = .94, CFI = .98, NFI = .97, RMSEA = .08로 나타났다.  $\chi^2$ 값이 유의하였으나,  $\chi^2$ 값의 경우 표본의 크기에 민감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적합도 지수와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김계수, 2010). 다른 적합도 지수의 판단 기준은 GFI, AGFI, CFI, NFI값이 .90 이상일 때 적절한 적합도로 판단되며, RMSEA는 .10 이하일 때 보통의 수준이고, .08 이하일 때 양호한 수준의 적합도로 판단된다(우종필, 2012). 따라서 본 연구모형을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4. 연구모형의 적합도 (N = 376)

	$\chi^2$	df	p	GFI	AGFI	CFI	NFI	RMSEA
적합도 기준			>.05	≥.90	≥.90	≥.90	≥.90	<.10
연구모형	10.27	3	.02	.99	.94	.98	.97	.08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4와 그림 1과 같다. 부모 놀이참여는 유아의 놀이몰입( $\beta = -.14, p < .05$ )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아의 실행기능( $\beta = .22, p < .001$ )에는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은 유아의 놀이몰입( $\beta = .80, p < .001$ )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아의 실행기능( $\beta = .02, ns$ )에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유아의 놀이몰입은 유아의 실행기능( $\beta = .13, p < .05$ )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N = 376)

경로	B	$\beta$	SE	C.R.
부모 놀이참여 → 유아의 놀이몰입	-.09	-.14	.06	-2.51*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 → 유아의 놀이몰입	.66	.80	.05	17.86***
부모 놀이참여 → 유아의 실행기능	.17	.22	.07	3.34***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 → 유아의 실행기능	.02	.02	.07	.33
유아의 놀이몰입 → 유아의 실행기능	.15	.13	.06	2.17*

\*  $p < .05$ , \*\*  $p < .01$ , \*\*\*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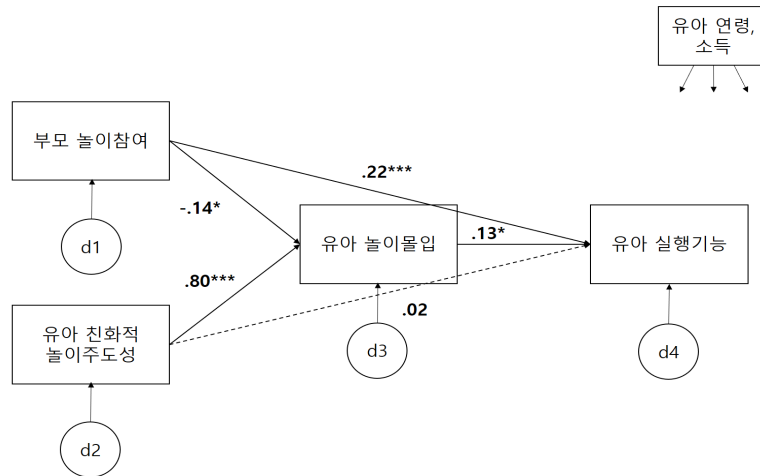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의 경로

다음으로 부모 놀이참여 및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이 유아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의 놀이몰입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활용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먼저, 직접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 놀이참여가 미치는 유아의 실행기능에 대한 직접효과( $\beta = .17, p < .01$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이 미치는 유아의 실행기능에 대한 직접효과( $\beta = .02, ns$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유아의 놀이몰입이 유아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직접효과( $\beta = .15, p < .05$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부모 놀이참여가 미치는 유아의 놀이몰입에 대한 직접효과( $\beta = -.09, p < .01$ )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이 유아의 놀이몰입에 미치는 직접효과( $\beta = .66, p < .01$ )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 놀이참여가 유아의 놀이몰입을 매개로 유아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간접효과( $\beta = -.01, p < .05$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이 유아의 놀이몰입을 매개로 유아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간접효과( $\beta = .10, p < .05$ )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인이 다른 변인들에 의해 얼마나 설명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상관자승값(SMC)을 산출하였을 때, 유아의 실행기능은 9%, 유아의 놀이몰입은 50% 설명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연구모형의 직접, 간접, 총효과 및 다중상관자승값 (N = 376)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SMC
부모 놀이참여 → 유아의 실행기능	.17**	-.01*	.15**	.09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 → 유아의 실행기능	.02	.10*	.12*	
유아의 놀이몰입 → 유아의 실행기능	.15*		.15*	.50
부모 놀이참여 → 유아의 놀이몰입	-.09**		-.09**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 → 유아의 놀이몰입	.66**		.66**	

\* $p < .05$ , \*\* $p < .01$ .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모 놀이참여 및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과 유아의 실행기능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놀이몰입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이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배경 변인에 따른 부모 놀이참여,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 유아의 놀이몰입 및 유아의 실행기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아의 연령 및 가구의 월평균 소득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의 연령에 따라 부모 놀이참여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유아의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 놀이참여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유아의 연령이 어릴수록 놀이참여를 많이 한다고 한 선행연구 결과(김명순 등, 2013; Barnett & Baruch, 1988)와 맥락을 같이하며, 유아의 연령이 어릴수록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유아의 나이가 많을수록 또래나, 형제, 자매 등과 놀이한다는 점(Lamb, 1986)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다음으로 유아의 연령에 따라 친화적 놀이주도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유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친화적 놀이주도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연령이 높을수록 놀이주도성이 높아진다고 한 연구결과(고윤지, 김명순, 2013)와 같은 맥락이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또래와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며 협동적인 놀이가 보편화되어 놀이주도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하지만 유아의 연령에 따른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추가적인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유아의 연령에 따라 놀이몰입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유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놀이몰입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만 3세보다 만 5세의 놀이몰입이 유의하게 높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김나래, 최미숙, 2022; 홍윤정, 2017) 연령이 증가할수록 놀이 지속시간이 증가하며, 놀이에 대한 주의집중력이 높아져 더욱 몰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연령에 따라 실행기능 또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아의 실행기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실행기능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선행연구(공영숙, 2012; 권두리, 2021)와 유사한 결과이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뇌성숙과 발달을 이루게 됨에 따라 행동을 조절하고, 충동을 억제하며, 유연하게 사고하는 능력 등의 실행기능이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정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실행기능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가구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이지연, 광금주, 2008)와 유사한 결과이다. 더욱이 소득이 낮은 가정의 유아는 발달에 필요한 물리적인 환경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지적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고(이봉주 등, 2010), 소득이 높은 가정의 유아는 발달에 적절한 물리적 환경을 제공받음으로써 유아의 인지적 자극을 촉진하여 소득이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부모 놀이참여 및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이 유아의 놀이몰입과 유아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모 놀이참여는 유아의 놀이몰입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유아의 놀이에 참여하는 것이 유아의 발달에 중요함이 강조되어 왔지만(Smilansky & Shefataya, 1990), 부모 놀이참여가 항상 유아의 놀이를 향상 촉진하는 것은 아니다(이소연 등,

2018).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가 어머니가 주도하는 놀이보다 지속성이 더 높았다는 연구결과(Fein & Fryer, 1995)로 미루어볼 때, 부모가 주도적이고 과도하게 유아의 놀이에 참여하는 것은 유아의 놀이몰입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 놀이참여가 유아의 발달에 중요하지만, 부모가 유아와의 놀이상황에서 몰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른 놀이참여 전략과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로 놀이지원과 관련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부모 놀이참여는 유아의 실행기능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행기능이 급격히 발달하는 유아기에 부모-자녀 관계는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이므로(이윤정 등, 2014) 유아기 실행기능의 발달은 부모 행동과 양육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황혜련, 송현주, 2013)고 판단된다. 뇌과학 분야에서 유아기 놀이는 정서, 인지, 행동, 사회 등 전반적인 발달의 중요한 요소로 뇌발달 촉진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한 연구결과(Brown & Vaughan, 2010)로 미루어볼 때 부모 놀이참여는 부모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부모 놀이참여 자체는 유아의 실행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은 유아의 놀이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가 또래와 놀이하는 상황에서 친화적인 주도 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이 놀이몰입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의 놀이몰입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고, 하고 싶은 놀이를 또래에게 제안하며, 목표를 가지고 놀이를 주도할 때 더 많은 몰입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김나래, 최미숙, 2022; 나은숙, 한수정, 2011). 따라서 유아가 또래와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놀이를 자기주도적으로 선택하고 이끄는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이 유아의 놀이몰입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은 유아의 실행기능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분석한 상관관계에서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과 유아의 실행기능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이 유아의 실행기능 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상관관계에서는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실행기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아의 놀이몰입을 고려할 때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이 유아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줄어들고, 유아의 놀이몰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아의 놀이몰입이 유아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아의 놀이몰입은 유아의 실행기능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놀이몰입이 유아의 실행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김진경(2020)의 연구결과와 놀이에 대한 흥미와 지속성이 인지적 유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안서희와 정윤경(201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유아가 스스로 선택한 놀이에 참여하며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유아의 실행기능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며, 유아의 인지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유아 스스로가 흥미를 가지고 놀이에 몰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의 실행기능을 증진시키는데 있어 유아의 놀이몰입이 중요함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유아기 놀이의 중요성의 재확인하는 중요한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부모 놀이참여 및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과 유아의 실행기능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놀이몰입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모 놀이참여가 유아의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유아의 놀이몰입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부호가 반대이고, 총효과의 크기보다 직접효과의 크기가 커서 억제효과(suppression)가 나타나는 상황으로 비일관적 매개모형 결과를 보였다(MacKinnon et al., 2000; Shrout & Bolger, 2002). 즉, 부모 놀이참여는 유아의 실행기능에 직접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지만, 유아의 놀이몰입을 통해 유아의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칠 때, 부적 간접효과가 나타나 억제효과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부모 놀이참여와 유아의 실행기능 간의 관계에서 부모 놀이참여가 양면적이고 서로 다른 방향의 영향이 공존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성인의 적절한 놀이개입이 유아의 놀이몰입을 지원한다는 연구결과(안소영, 최윤정, 2009; 이선경, 심성경, 2016)와 아버지의 적극적인 놀이과정과 참여가 유아의 놀이몰입을 유도한다는 연구결과(류희정, 이진희, 2013, 박형신, 김정주, 2017)로 미루어 볼 때, 부모 놀이참여가 유아 놀이의 질적 수준을 전반적으로는 향상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모든 부모 놀이참여 행동이 항상 유아의 놀이를 촉진하는 것은 아니며(이소연 등, 2018), 어머니는 놀이참여 상황에서 유아의 놀이 욕구와 대립할 때, 어머니의 요구와 입장을 이끌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강명화, 한진주, 2017), 어머니가 원하는 놀이로 환경마련 및 놀이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홍현명, 권혜진, 2021). 부모가 주도적이고 과도하게 유아의 놀이에 참여하는 것은 유아의 놀이몰입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여 부모 놀이참여와 유아의 놀이몰입 간에는 이중적인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 놀이참여가 유아의 발달에 중요하지만, 유아가 놀이에 몰입하고 주도적으로 놀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른 부모 놀이 참여 방법, 전략 및 개입 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놀이 상황별 적절하고 질 높은 부모 놀이 참여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및 교육이 요구되고, 부모 놀이참여와 유아의 실행기능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놀이몰입은 양면적이고 서로 다른 방향의 영향이 공존한다고 예측할 수 있기에 추가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시사된다. 또한, 2019 개정누리과정에서는 유아가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스스로 배운다는 점에 주목하여 유아의 놀이가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으로 재정립하였는데(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과이다.

한편,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이 유아의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유아의 놀이몰입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이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높이고 놀이를 확장하며, 내적 동기에 의해 작용하는 점(안미현, 김정미, 2017)은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과 유아의 놀이몰입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에 의해 향상된 놀이몰입은 유아의 실행기능을 차례로 향상시킨다. 이는 몰입이 학업성취와 의사소통 기술 등 인지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강명숙, 방은령, 2014), 놀이몰입이 실행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선행연구(김진경, 2020)와 유사한 결과이다.

즉, 유아가 또래와의 놀이를 주도하는 긍정적인 언어적 및 행동적 전략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친화적 놀이주도적 행동이 증가하면(이유미, 신나리, 2019) 놀이를 통해 느끼는 긍정적인 정서 및 의식상태인 놀이몰입을 향상시킨다. 그 결과 놀이상황에서 느끼는 내적인 즐거움이 유아의

인지·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실행기능이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놀이상황에서 부모와 교사의 적절한 상호작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설계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제한점과 제언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한정된 지역에서 유아교육·보육기관에 재원 중인 만 3~5세 유아와 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표집이 이루어졌고, 연령 또한 만 3세에 비해 만 4세, 만 5세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에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유아의 연령의 비율을 고려하고 국내 타지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모 놀이참여는 부모가 질문지를 통해 참여정도를 작성하여 응답자별로 점수를 측정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 더욱이 부모 놀이참여는 방식과 정도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지로는 이를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부모 놀이참여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놀이관찰과 질문지를 함께 사용하는 등의 통합적 접근을 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유아의 실행기능 증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인 중 개인외적 변인인 부모 놀이참여와 더불어 내적 변인인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 및 놀이몰입에 주목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부모 놀이참여와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이 유아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의 놀이몰입의 매개효과를 살펴봄으로써 부모의 놀이참여,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 및 놀이몰입이 유아의 실행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각 변인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유아의 실행기능의 긍정적 발달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유아의 발달을 위한 부모 교육과 유아의 친화적 놀이주도성 및 놀이몰입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강명숙, 방은령 (2014). 대학생의 자기주도성, 학습몰입, 진로결정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 간의 관계 구조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4), 443-467.
- 강명화, 한진주 (2017).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하는 놀이의 의미: 어머니의 관점을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21(4), 541-563. <https://doi.org/10.21459/kccr.2017.21.4.541>
- 강유진 (2013). 유아의 놀이주도성과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관계.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윤지, 김명순 (2013). 유아의 놀이성, 놀이주도성 및 의사소통능력 수준에 따른 놀이행동. **한국아동학회**, 34(1), 175-189. <https://doi.org/10.5723/KJCS.2013.34.1.175>
- 공영숙 (2012).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태도가 유아의 문제행동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 영향: 실행기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공영숙, 임지영 (2013). 유아의 기질과 실행기능이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Lutzman의 문제행동 이론 검증을 중심으로. **아동교육**, 22(4), 5-24.
- 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2019 개정누리과정 해설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 권두리 (2021). 유아기 일상의 실행기능 척도(REEF)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계수 (2010). **AMOS 18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한나래아카데미.
- 김나래, 최미숙 (2022). 유아 놀이몰입 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27(5), 195-218. <http://doi.org/10.20437/KOAECE27-5-08>
- 김명순, 조항린, 박영림, 신혜영 (2013). 부모와 유아 자녀의 놀이에 관한 연구: 부모의 놀이신념 및 놀이참여를 중심으로. **열린부모교육연구**, 5(1), 37-53.
- 김정운 (2006). **노는만큼 성공한다**. 21세기북스.
- 김진경 (2020). 놀이를 통한 실행기능 증진과 놀이몰입의 관계.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나은숙 (2013). 유아 놀이 몰입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4(4), 589-608.
- 나은숙, 한수정 (2011). 유아가 자유선택활동에 몰입하는 맥락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5(1), 59-78.
- 노윤미 (2006). 아버지의 언어통제유형 및 놀이참여와 유아의 마음이론 발달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희정, 이진희 (2013). 유아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놀이참여와 유아의 행동적 자기조절력의 관계. **육아지원연구**, 8(2), 47-64. <https://doi.org/10.16978/eccc.2013.8.2.003>
- 박진희 (2019). 방과후 놀이유치원 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주도성과 놀이몰입과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4), 1103-1122. <https://doi.org/10.22251/jlcci.2019.19.24.1103>
- 박형신, 김정주 (2017). 아버지의 놀이참여가 유아의 놀이몰입과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유아 친밀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8(5), 501-522. <https://doi.org/10.22143/HSS21.8.5.28>
- 변혜원 (2017). 유아의 억제통제 및 기질과 교사-유아 상호작용(CLASS)이 또래주도성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변혜원, 성지현 (2017). 유아의 또래주도성 척도 개발 및 내적 구조 탐색. **한국심리학회지:발달**, 30(3), 1-24.
- 신유림 (1995). 유아의 상상놀이에서 주도적, 추종적 놀이스타일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15(2), 23-36.
- 안미현, 김정미 (2017). 유아의 놀이성 및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유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4(4), 213-228. <https://doi.org/10.22155/JFECE.24.4.213.228>
- 안서희, 정윤경 (2019). 놀이 상황에서 어머니의 인지적-정서적 지지와 유아의 인지적 유연성 간의 관계: 흥미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2(3), 99-119. <https://doi.org/10.35574/KJDP.2019.09.32.3.99>
- 안소영, 최윤정 (2009). 놀이중심 유아교육: 유치원에서 하루 종일 놀이에 몰입 하도록 지원하기.

**아동과 권리**, 13(4), 555-577.

우종필 (2012). **우종필 교수의 구조방정식 모델 개념과 이해**. 한나래아카데미.

원희영 (1997). 아버지의 놀이참여 수준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봉주, 김선숙, 김남희 (2010). 한국 아동 발달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1, 107-140.

이선경, 심성경 (2016). 유아교사의 교수몰입도에 따른 유아의 놀이몰입 및 자기효능감. **육아지원 연구**, 11(3), 5-28. <https://doi.org/10.16978/ecec.2016.11.3.001>

이소연, 위영희, 유재령, 정윤주, 이영애, 김리진 (2018). 영유아 부모의 놀이참여태도 척도 타당화 연구. **놀이치료연구: 한국놀이치료학회**, 21(4), 491-507. <https://doi.org/10.17641/KAPT.21.4.4>

이숙재 (1984). 유아의 상상놀이와 제변인과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유미, 신나리 (2019). 유아의 또래주도성이 또래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교사-유아 관계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5(5), 69-86. <https://doi.org/10.14698/jkce.2019.15.05.069>

이윤아, 이완정 (2015). 유아의 운동 능력과 실행 기능의 관계.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5), 135-151. <http://doi.org/10.14698/jkce.2015.11.135>

이윤정, 공영숙, 임지영 (2014). 부모의 양육행동의 유아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 **가정과삶의 질연구**, 32(1), 13-26. <https://doi.org/10.7466/JKHMA.2014.32.1.13>

이지연, 곽금주 (2008). 아동초기 사회경제적 지위(SES)와 가정환경이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3), 151-165.

이채호, 최인수 (2008). 교사용 유아 리더십 평가척도 개발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3(3), 23-37.

장수진 (2008). 유아의 기질, 인지능력, 실행기능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울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정은진 (2019). 유아의 실행기능과 수학이야기문제해결력 간의 관계.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5(1), 37-55. <https://doi.org/10.14698/jkce.2019.15.01.037>

조다연, 성지현 (2020). 유아의 실행기능이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 놀이성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1(4), 61-73. <https://doi.org/10.5723/kjcs.2020.41.4.61>

차미숙 (2018). 유아의 실행기능과 유아교육기관 적응, 학교준비도, 기질, 어머니 양육행동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차미숙, 김광웅 (2018). 기질과 어머니 양육행동이 유아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 연구**, 10(1), 115-138.

차유미, 이진희 (2016). 어머니들이 구성한 유아 바깥놀이의 의미: 안전과 위험부담 딜레마를 중심으로. **열린부모교육연구**, 8(1), 15-35.

최남정, 오정희 (2010). 유아교실에서 발생하는 몰입과 미적경험-자유선택활동시간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0(1), 173-196. <https://doi.org/10.18023/kjece.2010.30.1.007>

최미숙, 황윤세 (2007).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에 대한 교사-유아관계와 또래유능성의 관계 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1), 103-123.

- 최유석 (2018). 부모의 놀이참여 및 유아의 놀이성이 유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 자기조절 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은정, 김은향 (2019). 가족상호작용, 부모-자녀상호작용, 놀이상호작용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24(2), 1-21. <https://doi.org/10.20437/KOAECE24-2-01>
- 최태산, 조미정 (2009). 아동의 놀이성 관련 연구 경향 분석: 국내학회지 및 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1994년~2008년).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2(4), 75-96.
- 홍윤정 (2017). 유치원 교사의 공감능력과 유아의 놀이몰입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현명, 권혜진 (2021).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놀이참여가 놀이신념에 미치는 영향. *Global Creative Leader*, 11(3), 145-165. <https://doi.org/10.34226/gcl.2021.11.3.145>
- 황윤세 (2022). 유아의 실행기능과 학교준비도 간의 관계에서 놀이 주도성의 매개효과. *유아교육연구*, 42(4), 349-364. <https://doi.org/10.18023/kjece.2022.42.4.014>
- 황혜련, 송현주 (2013). 아동기 실행기능과 부모양육태도. *재활심리연구*, 20(2), 149-167.
- Barnett, R. C., & Baruch, G. K. (1988). Correlates of fathers' participation in family work. In P. Bronstein & C. P. Cowan (Eds.), *Fatherhood today: Men's changing role in the family* (pp. 66-78). Wiley.
- Black, B. (1992). Negotiating social pretend play: Communication differences related to social status and sex. *Merrill-Palmer Quarterly*, 38(2), 212-232.
- Brown, S., & Vaughan, C. (2010). *플레이, 즐거움의 발견*(윤미나 옮김). 흐름출판. (원판 2009)
- Carlson, S. M., & Wang, T. S. (2007). Inhibitory control and emotion regulation in preschool children. *Cognitive Development*, 22(4), 489-510. <https://doi.org/10.1016/j.cogdev.2007.08.002>
- Cemore, J. J., & Herwig, J. E. (2005). Delay of gratification and make-believe play of preschoolers. *Journal of Research in Childhood Education*, 19(3), 251-266. <https://doi.org/10.1080/02568540509595069>
- Coolidge, F. L., Thede, L. L., & Young, S. E. (2000). Heritability and the comorbidity of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with behavioral disorders and executive function deficit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Developmental Neuropsychology*, 17(3), 273-287. [https://doi.org/10.1207/S15326942DN1703\\_1](https://doi.org/10.1207/S15326942DN1703_1)
- Dewey, J. (1934). *Art as experience*. Capricorn Book, G. P. Putnam's Son.
- Diamond, A., & Taylor, C. (1996). Development of an aspect of executive control: Development of the abilities to remember what I said and to "Do as I say, not as I do. *Developmental Psychology*, 29(4), 315-334. [https://doi.org/10.1002/\(SICI\)1098-2302\(199605\)29:4<315::AID-DEV2>3.0.CO;2-T](https://doi.org/10.1002/(SICI)1098-2302(199605)29:4<315::AID-DEV2>3.0.CO;2-T)
- Fein, G. G., & Fryer, M. G. (1995). Maternal contributions to early symbolic play competence. *Developmental Review*, 15(4), 367-381. <https://doi.org/10.1006/drev.1995.1014>
- Gioia, G. A., Isquith, P. K., & Guy, S. C. (2001). Assessment of executive functions in children with

- neurological impairment. In R. J. Simeonsson & S. L. Rosenthal (Eds.), *Psychological and developmental Assessment: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chronic conditions* (pp. 317-356). The Guilford Press.
- Golub, T. L., Rijavec, M., & Olčar, D.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executive functions and flow in learning. *Studia Psychologica*, 58(1), 47-58. <https://doi.org/10.21909/sp.2016.01.706>
- Goncu, A. (1993). Development of inter-subjectivity in the dyadic play of preschoole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8(1), 99-116. [https://doi.org/10.1016/s0885-2006\(05\)80100-0](https://doi.org/10.1016/s0885-2006(05)80100-0)
- Goncu, A., & Kessel, F. (1984). Children's play: A contextual functional perspective.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984(25), 5-22. <https://doi.org/10.1002/cd.23219842503>
- Hughes, C. (1998). Executive function in preschoolers: Links with theory of mind and verbal ability.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6(2), 233-253. <https://doi.org/10.1111/j.2044-835x.1998.tb00921.x>
- Hughes, F. P. (1995). *Children, play, and development*. Allyn and Bacon.
- Kelly, R., Dissanayake, C., Ihsen, E., & Hammond, S.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symbolic play and executive function in young children. *Australasi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36(2), 21-27. <https://doi.org/10.1177/183693911103600204>
- Kostelnik, M. J., Soderman, A. K., Whiren, A. P., Rupiper, M. L., & Gregory, K. M. (2015). 영유아의 사회정서발달과 교육(박경자, 김송이, 신나리, 권연희, 김지현 옮김). 교문사.(원판 2015)
- Lamb, M. E. (1986). *The Father's Role: Applied Perspectives*. Wiley.
- MacKinnon, D. P., Krull, J. L., & Lockwood, C. M. (2000). Equivalence of the mediation, confounding and suppression effect. *Prevention Science*, 1(4), 173-181.
-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5). Predict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attention, memory, and planning in first graders from experiences at home, child care, and 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41(1), 99-114. <https://doi.org/10.1037/0012-1649.41.1.99>
- Nilsen, E. S., Huyder, V., McAuley, T., & Liebermann, D. (2017). Ratings of everyday executive functioning (REEF): A parent-report measure of preschoolers' executive functioning skills. *Psychological Assessment*, 29(1), 50-64. <https://doi.org/10.1037/pas0000308>
- Russell, A., & Saebel, J. (1997). Mother-son, mother-daughter, father-son, father-daughter: Are they distinct relationships?. *Developmental Review*, 17(2), 111-147. <https://doi.org/10.1006/drev.1997.0456>
- Schwartzman, H. (1978). *Transformations : The anthropology of children's play*. Plenum press.
- Segal, M., & Adcock, D. (1981). *Just pretending: Ways to help children grow through imaginative play*. Englewood Cliffs, Prentice Press.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https://doi.org/10.1037/1082-989x.7.4.422>

- Smilansky, S. & Shefataya. (1990). *Facilitating play. A medium for promoting cognitive, socio-emotional and academic developmental in young children*. Psychosocial and Educational Publish.
- Sokol, B., Muller, U., Carpendale, J., Young, A., & Iarocci, G. (2010). *Self-and social-regulation: Social interaction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interaction, social understanding and executive func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 Stevenson, M. B., Leavitt, L. A., Thompson, R. H., & Roach, M. A. (1988). A social relations model analysis of parent and child play. *Developmental Psychology, 24*(1), 101-108. <https://doi.org/10.1037/0012-1649.24.1.101>
- Toub, T. S. (2012). *What Good is Pretending? Adding a Pretense Context to the Dimensional Change Card Sort* (Publication No. 3552865)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oQuest Dissertation and Theses Global.
- Towe-Goodman, N. R., Willoughby, M., Blair, C., Gustafsson, H. C., MillsKoonce, W. R., & Cox, M. J. (2014). Fathers' sensitive parenting and the development of early executive functioning.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8*(6), 867-876. <https://doi.org/10.1037/a0038128>
- Trawick-Smith, J. (1988). "Let's say you're the baby, OK?" Play leadership and following behavior of young children. *Young Children, 43*(5), 51-59.
- Welsh, M. C., Pennington, B. F., & Groisser, D. B. (1991). A normative developmental study of executive function: A window on prefrontal function in children. *Developmental Neuropsychology, 7*(2), 131-149. <https://doi.org/10.1080/87565649109540483>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Sage.
- Zelazo, P. D., Carter, A., Reznick, J. S., & Frye, D. (1997). Early development of executive function: A problem-solving framework.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1*(2), 198-226. <https://doi.org/10.1037/1089-2680.1.2.198>
- Zelazo, P. D., Muller, U., Frye, D., Marcovitch, S., Argitis, G., Boseovski, J., & Carlson, S. M. (2003). The development of executive function in early childhood.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8*(3), i-151. <https://doi.org/10.1111/j.0037-976x.2003.00260.x>

논문투고: 22.09.26.

수정원고접수: 22.11.20.

최종게재결정: 22.11.30.